



길목교회
THEWAYNEWS

주후 2023.10.22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유튜브&카카오채널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37 노블리제빌딩
406호 더블어섬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이메일

gilmokchurch@gmail.com

사역자

담임목사 : 이길주
교육목사 : 권세진
전도사 : 전정민
전도사 : 황예찬
음악사역 :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 전정민
가야금 : 김고은
해금 : 이건명
베이스 : 장 천
피아노 : 정지혜
기타 : 황예찬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치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뱃 속 깊이 그리스도인

세상 철학과 자신의 감각보다 더 우선하는 건 성경, 익숙히 알고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성경공부 및 주중 세미나] 주일 오후 2시 및 주중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받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바쁜 현대인의 삶으로

건물 안에서만 고백하고 활동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치열한 성도들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합니다.

[카페 데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신앙, 성경에 대해 궁금한건 언제든지 편하게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주일에배

오전10:30 커피타임으로 시작

고백과 참회

예배로 부름..... 인도자

입례송.....〈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같이

F A Dm F/C Bb Gm7 Csus
 왕 이 신 나 의 하 나 님 - 내 가 - 주 를 높 이 고 -
 C7 F A Dm F7/C Bb C7 F Bb/F F
 - 영 원 히 주 의 이 름 을 - 송 축 하 리 이 다

성시 교독.....〈요한복음 3장〉..... 다같이

(인도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도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도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성도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인도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인도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성도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인도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성도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인도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성도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인도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다같이)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참회 기도.....〈나,이웃,교회,나라,세상〉..... 다같이

사죄의 확신 **다같이**

(인도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

찬양 **찬양팀과 함께**

감사의 고백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말씀과 나눔

말씀 교독 **〈히브리서 11:1-12〉** **다같이**

말씀 듣기와 묵상 **다같이**

말씀 권면 **이길주 목사**

묵상 기도 **다같이**

응답의 찬양 **다같이**

♩ = 72

p F C Dm B $\flat$ D G C F C Dm Gm C³ F

사 랑 의 나 눔 있 는 곳 에 하 나 님 께 서 계 시 도 - 다

2번 함께 부릅니다

말씀 기도 **다같이**

응답과 축복

✚ 감사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다같이**

✚ 결단과 축복 **다같이**

(인도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주의 자녀 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업터 위에 복이 있을지어다.**

(다같이)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1-2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3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4 믿음의 행위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드린 제물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그 믿음은 여전히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5-6 믿음의 행위로 에녹은, 죽음을 완전히 건너뛰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눈을 찿고 찾아보아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을, 믿을 만한 증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7 믿음으로 노아는, 메마른 땅 한복판에 배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하셨을 때, 지시받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행위가, 믿지 않는 악한 세계와 믿는 올바른 세계를 예리하게 구분 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8-10 믿음의 행위로 아브라함은, 장차 그의 본향이 될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하고 응답했습니다. 떠나면서도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는, 자신에게 약속된 땅에서 살되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같은 약속 아래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재하는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진 도성, 곧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신 도성에 눈을 고정했던 것입니다.

11-12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 들어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음에도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약해져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한 사람의 몸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난 것입니다.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5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11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12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말씀묵상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 듣기



감사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Words and Music by Henry Smith

거룩하신 하나님 - 주께 감사드리세 - 날

위해 - 이땅에 오신 독생자 - 예수 나

의 맘과 뜻 다해 - 주를 사랑합니다 - 날

위해 - 이땅에 오신 독생자 - 예수 내

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 할 때 우리

를 부요케 하 신나의 주 감 - 사 내

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 할 때 우리

를 부요케 하 신나의 주 감 - 사 감사 -



우간다 사역에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주보 공동체소식면에 있습니다

현지 사역자 자립 프로젝트

신학교를 졸업해도 목회자로 살거나 개척하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교회는 목회자의 생활을 지원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교회가 거의 전무한 신학생들은 생계를 위한 전선에 뛰어들고 목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역자 자립 프로젝트를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전반기 제자훈련을 통해 키워진 사람들에게 하반기에는 직업학교를 통한 자립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을 가진 선생님들을 영입하고, 이후 기술을 익힌 사람들에게 사업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창원지원센터 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

한국의 주일학교가 비어가는 상황에서 우간다는 20세 미만의 아이들이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합니다. 중고등학교만 들어가도 가치관이 형성되어 변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여 복음대로 살도록 하는 주일학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여명의 아이들이 주일에 모여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음세대를 통해 우간다가 준비되고 부흥해 나가도록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십시오.

세종학당 사역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우간다의 귀한 인재들을 발굴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쳐 글로벌 리더로 키워가는 사역입니다. 우간다를 복음위에 세우기 위해 각 영역의 인재들을 키워 한국으로 유학보내고 취업할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돕습니다.



교회안내

하나님나라를 위한 길목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20 (10:30 커피타임시작)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2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목요일 오전 10:30~12:30
주일오후 프로그램	주일 오후 1:30~3:30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전도사	전정민	음악사역	이건명
전도사	황예찬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황예찬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사역 헌금 계좌]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길목교회의 추구가치

길목교회의 방향성

길목교회는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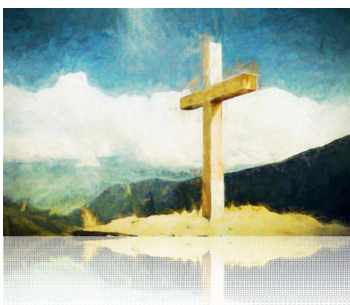
길목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후손들에게도 계승하여 이 땅에 쓰신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일상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건물에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때의 예배만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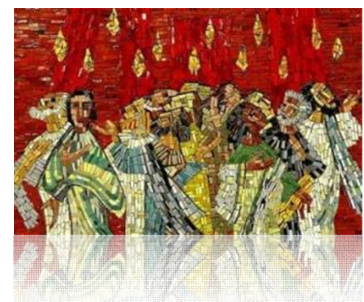
길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간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목교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소식

주님 나라를 위한 행복한 공동체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이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등록부 작성

지난 주 새가족환영회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새가족분들은 새가족등록부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목교회 한 공동체가 되어 서로 중보하고 관심갖고 함께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사진액자가 나왔습니다. 본인 것을 꼭 찾아가세요.

이번주 점심식사 섬김 감사

오늘 점심식사는 이춘원·정지혜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주셨습니다. 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11월 식사 섬김 - 김점순 집사님)

다음주 권면 담당

다음주 29일에는 황예찬 전도사님이 예배 중 권면을 담당해주시겠습니다.

담임목사 성지순례 가이드 사역

내일 23일부터 11월3일까지 종교개혁지 성지순례 인솔사역을 나갑니다. 참여하는 제 일성도교회를 위해서, 이루어질 사역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능력이 나타나도록 중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후원 사역 약정 (매월 1일 자동이체 해주세요)

주보 9쪽에 있는 선교 사역을 참고해주세요 ^^

지난주 선교 약정을 통해 10개 구좌가 마련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매월 1일 교회 통장으로 1년동안 송금 부탁드립니다.

사역협력: 주일학교 어린이와 교사에게 장학금 후원/ 사역 후원

약정형태: 월1만원씩 1년 후원 + 교회에서 월 10만원씩 후원

후원방법: 교회 통장으로 <본인이름+우간다>로 매월 입금 (교회통장에서 선교사님 계좌로 매월 1일 송금)

교회통장: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사역 일정

11월27일 - 교역자 리트릿